

| 광주경총, 김경희 희망교육개발원장 금요조찬포럼 |

“어려울수록 응원…리더는 칭찬·나눔·자족의 힘 길러야”



김경희 희망교육개발원장

‘30년 시집살이’ 성장 기회 삼아…전국구 기업 도약
웃는 습관이 최고 경쟁력…비교 멈추고 내 길 찾기

“어려울수록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장은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김경희 희망교육개발원장은 지난 14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03회 금요조찬포럼에서 ‘사장으로 산다는 것·리더로 산다는 것-저도 조금은 성공했습니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강연 서두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경영 환경을 언급하며 “지금은 조연보다 응원과 격려가 더 절실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살다 보면 누구나 10번 이상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겪는다. 하지만 그 때마다 다시 일어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자기 인생의 영웅”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사장은 직원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쉽게 ‘힘들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응원과 격려가 없다면 그 책임감은 무거운 짐이 된다. 그래서 사장은 더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연은 김 원장이 걸어온 삶의 여정을 되짚으며 리더십의 본질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성에서 나고 자란 유년시절과 30년의 시집살이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 자기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김 원장은 자신이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강사로 성장한 과정, 이후 교육기업을 설립해 전국적

인 사업망을 구축하기까지의 경험과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현재 그는 150여 명의 전문 강사와 함께 매년 4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교육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다. 저도 유명 강사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다”면서 “하지만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길을 보니 비로소 기회가 보였다”고 고백했다.

이어 “큰 성공은 아니지만 수백 명의 청년과 강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만드는 일, 그 자체가 제겐 의미 있는 성공”이라고 설명했다.

미스코리아 광주·전남 선발대회(1987년·진 당선)를 준비하던 일화, 강사 초년생 시절 마주했던 실수와 좌절 등도 유쾌하게 풀어냈다. 그러면서 “실수는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겸손은 행복의 리더”라며 “웃는 습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강연 중 웃음이 터지는 장면도 많았다. 김 원

장이 “옆 사람에게 ‘멋지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고 유도하자 강연장 곳곳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말은 사람을 살린다. 빈말이라도 좋다. 우리는 빈말로도 용기와 자존감을 높여주는 민족”이라고 재치 있게 말했다.

김 원장은 ‘스스로를 칭찬하는 힘’을 가장 중요한 자기경영 도구로 꼽았다.

그는 “장앜을 가진 한 여성분이 매일 자기 자신에게 ‘잘 살아있다, 대단하다’고 말한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며 “남이 해주는 칭찬은 오래가지 않지만 스스로 자신에게 해주는 격려는 평생 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추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행복은 성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웃음·칭찬·나눔·자족의 마음이 곧 리더의 힘”이라고 정리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은행은 대포통장 유통과 해외조직 연계 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최근 광주경찰청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 지역민 자산 지키기 ‘온힘’

42억 피해 예방…광주경찰청과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구축

광주은행이 광주경찰청과 함께 지역민의 자산 보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악용한 대포통장 유통과 해외조직 연계 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지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가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한층 고도화했다.

또한 영업점 창구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응교육과 찾아가는 예방교육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광주은행은 2023

년 28억원, 지난해 39억원, 올해 10월 말 기준 42억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사례로 광주은행 송정지점에서는 직원의 예리한 판단력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2억5000여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아파트 리모델링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상담 과정에서 이상 정황을 감지한 직원이 즉시 전담 부서와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지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

최근에는 광주경찰청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최근 지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정기적 간담회 개최, 피해 의심 계좌 모니터링 및 112 신고 협조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 발굴 및 시범운영, 합동 홍보·교육 캠페인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상형 범죄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광주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신뢰받는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은행은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는 최후이자 가장 중요한 방아쇠”이라며 “광주은행과의 협약을 계기로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포용적·미래지향적 경제교육 생태계 구축”

광주경제교육센터, 실무협의체…맞춤형 경제교육 방향 모색

(재) 광주연구원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최근 연구원 1층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하반기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 광주시 경제창업국, 광주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광주공유센터,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등명, 광산구가속센터,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문화중학교, 광주정광고등학교, 광주남구문화정보도서관 등 14개

유관·수요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광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기획재정부 지정 경제교육지원기관으로, 광주시와 협력해 학생·군 장병·발달장애인·다문화가정·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2만4000여명에게 맞춤형 경제교육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실무협의체에서는 △2025년 경제교육 운영성과 공유 △2026년 신규 사업 방향 및 공동협력 과제 △기관별 자문 및 정책 제안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영화로 배우는 경제’, ‘늘봄학교 경제교육(이코 어드벤처)’, ‘가족애독록 우리가족 경제캠프’, ‘AI+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모임’ 등 신규 프로그램의 성과와 개선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기관별 제안도 이어졌다.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등명은 청년층 금융사기 예방과 자산관리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복지기관과 특수학교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보호자 연계형 프로그램 확대와 단계별 학습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남구문화정보도서관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청각·체험형 콘텐츠 기반 교육과 도서관 간 주제 문화형 협력을 제안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한전, 빈집 정비사업에 전력데이터 활용

부동산원에 사용량·계량기 철거 이력 등 제공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과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사업에 한전의 전력데이터를 접목해 실태조사나 철거해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 안전 확

보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한 국가사업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해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 안전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자체는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빈집 여부, 관리현황, 방치 기간, 소유권 관계 등을 조사한다.

한전은 한국부동산원에 빈집 실태조사가 필요한 세대의 월별·연간 전력사용량, 계량기 철거 이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여부 등 전력데이터를 제공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하고,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 글로벌